

“엘로우 시티” 색 마케팅 대성공...이젠 ‘부채 제로화’에 도전

민선 6기 2년 설계
유두석 장성군수



장성을 색(色)으로 비유하자면 노랑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을 대표할 특색있는 네이밍을 찾다가 “강 깊은 곳에서 황룡이 살았다”라는 황룡강 전설을 모티브 삼아 ‘엘로우 시티’(Yellow-City)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지역 곳곳에 연중 노란 색 꽃이 활짝 피는 꽃동산을 조성해 식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활기찬 도·농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유래가 없는 색 마케팅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관(官) 주도에서 탈피해 관내 기업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주민 등과 거버넌스를 이뤄 꽃동산을 조성했다. ‘엘로우 시티’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장성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 ‘향기나는 엘로우 시티 창조사업’이 선정돼 단순히 경관개선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사업으로

노란 꽃동산 조성 식물·인간 공존 활기찬 ‘도·농복합도시’ 만들겠다 호남권 농협 물류센터 유치 성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2015년 ‘대한민국 경영대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

유 군수는 “현재 읍·면 곳곳에 꽃동산을 조성한 단계지만 앞으로는 노란색 건물로 이뤄진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및 관련 상품을 개발, 장성을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려는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민선 6기 출범 당시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있는 장성’을 기치로 내세웠던 유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내실있는 국정운영으로 여러 방면에서 고른 성과를 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중앙부처 출신인 유 군수는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국비확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비 7억원 전액을 지원받

아 장성을 고려시멘트 앞 오거리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했으며, 그린벨트내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주저하지는 국비를 전남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가 한창인 나노산단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폐수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20억원을 받아냈으며, 지난해 말에는 이 개호 국회의원과 함께 전디발 도질개선을 위한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호남권 농협 물류센터 및 농산물 비축기지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추가사업들을 유지했다.

군은 비상할 비축제(APTERR)사업 5000t 물량 우선 배정, 1600㎡ 규모 비축미 저장 DSC시설 건립, 남면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비용 일부 지원, 지역농협 무이자자금 지원확대(20억~30억~80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류시설 일부 유통 시설 전환 등의 혜택을 이끌어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의 투자유치 성과도 눈부시다. 지난 1년 동안 47개 기업을 유치해 목표 대비 40%를 달성했다. 이는 992억원의 투자액을 이끌어내고, 820명의 고용창출이라는 성과로 이

어졌다.

연초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일자리 센터’를 개소,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0여명의 취업을 돕기도 했다.

‘어르신 효도권’ 지원도 군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군은 예산을 2배 증액해 목욕권을 ‘효도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월 2에서 3배씩 지급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목욕권과 달리 목욕탕뿐만 아니라 이·미용실까지 선택 폭이 넓어져 어르신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황룡강·개천 생태하천 복원 ▲공설운동장 건립계획 수립 ▲수요자중심 농정 조직 개편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매력있는 장성 만들기를 위한 기반을 확실히 다져갔다.

유두석 군수는 “민선6기 2년 차에는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황룡강변 자전거 도로’ 조성 등을 통해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군민안전에 위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 제로(Zero)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드론으로 새떼 쫓는다

장성 박성배씨 수확기 아로니아 열매 지키기

무선조종 비행장치 활용 “새들이 겁먹어 효과 좋아요”

영상촬영에 주로 활용되는 소형 드론(Drone=무선조종 비행장치)을 장성한 농가가 농업분야에 ‘이색적으로’ 응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자하동에서 아로니아(블랙초코베리) 농사를 짓는 박성배(59) 씨.

박씨는 수확기에 아로니아 열매를 쫓아대는 물까치와 까치, 직박구리, 어치 등 새떼를 쫓는데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13년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정년 퇴직하고 귀농한 박씨는 지난해 2000평 밭에 2300주의 아로니아를 심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나 수확기에 몰려드는 새떼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다.

남창계곡에 위치한 자하동은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총포·화약류를 사용해 야생조수를 포획할 수 없고, 소음기도 쓸 수 없었다. 자구적으로 비용을 들여 농장에 그물망을 씌워봤지만 새들은 부리로 그물을 찢고 들어와 열매를 쪼아대기 일쑤였다.

올해 역시 새 퇴치 방법을 골몰하던 박씨는 ‘드론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사진작가인 박씨는 마

침 지난해에 드론(중국 DJI 팬텀 2)을 구입해 농사와 병행하며 백암산 사계절 영상 작업을 하고 있던 터였다.

실제로 시도를 해보니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새들은 ‘학습효과’ 때문에 ‘윙~’ 드론 소리만 들려도 말쑥이 달아났다. 요즘 수확을 10여일 앞두고 새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오전 5~8시와 오후 해질녘에 드론을 날리고 있다.

드론은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는 박씨 구상과도 맞아 떨어졌다. 청정 지역인 자하동은 본래 주민들이 거주하던 자연마을로, 국립공원이면서도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정년을 앞두고 작물을 고삼하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병충해와 추위 등에 강한 아로니아를 선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박씨는 청정지역인 농장 특성을 살려 120m 길이의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공급하고, 할미꽃 뿌리 등으로 만든 천연약제를 사용하는 등 구슬땀을 흘린 결과물로 최근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획득했다.

박성배 씨는 “새들이 열매를 따먹는 다



장성에서 ‘아로니아’(블랙초코베리)를 재배하는 박성배 씨가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열매를 쪼아먹는 새떼를 쫓기 위해 드론(무인 비행기)을 날리고 있다.

면 까치잡처럼 일정 부분 나눠먹을 수 있을 텐데, 열매를 쪼아 대며 떨어뜨려버려 애써 농사지은 것을 망쳐놓는다”며 “드론을 활용해보니 청정지역인 국립공원 특성을 살리면서 친환경농업도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재직중에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백양더부살이’(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를 70년만인 지난 2000년 백양사 인근에서 재발견해 세상에 알렸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 일본 식물학자 나카 이 박사가 첫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으나 이후 실체가 없이 이름만 전해져 오던 희귀종 식물이다.

한편 아로니아는 타임지(誌)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중 하나이다. 베리류 중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함량이 블루베리의 7배 정도 함유돼 있어 암 예방과 면역력 증진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사진=송기동기자 song@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사업 추진

대나무·가사문학 등 지역 자산 부각...공청회 거쳐 연내 지정

담양군이 오는 12월을 목표로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달 중 특화사업·특구사업자 지정 등을 공고하고, 주민 공청회와 군의회 의결 정취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9월에는 특구 지정 신청서를 중소 기업청에 제출하는 등 중앙부처 협의와 규제관련 심의를 거쳐 올해안에 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연구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6월에는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협의하고 최근에는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군은 대나무를 인문학적 가치로 재조명

하고 생태환경, 가사문학 유적 등 지역의 자산을 부각할 방침이다.

특구 계획은 2개 전략, 4개 추진과제, 2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생태인문학 콘텐츠 개발 ▲인본 중심 인문학 계승·발전 ▲인문학 참여경제 인문학 인프라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특화사업 발굴, 규제 특례 적용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인문학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사람과 자연, 경제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인문학 생태도시’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대통령기 전국 조정선수권 25~27일 장성호서

‘제31회 대통령기 전국 조정선수권대회’가 오는 25~27일 사흘간 장성호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0여개팀 남녀 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뉜 싱글 스컬과 더블 스컬, 무타페어, 에이트 등의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장성군은 지난 2008년 전국 체육대회부터 2009~11년 대통령기 전국 조정선수권대회, 2012~13년 전국 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전국 시·도대학 조정대회, 올해 대회까지 8년 연속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조정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투매기입니다.

| 지방지사 (061) | | | 시내지국 | | |
|------------|--------------|-------|--------------|-------|----------|
| 광 산 | 062)944-0444 | 남 원 시 | 063)626-1601 | 광 천 | 366-8375 |
| 군 산 시 | 063)467-2500 | 순 창 군 | 063)653-0444 | 남 광 | 222-9440 |
| 정읍 시 | 063)531-5544 | 서울보급소 | 02)313-5962 | 부 광 | 652-0175 |
| | | | | 동 광 | 264-2012 |
| | | | | 명 명 | 222-9054 |
| | | | | 동 부 | 225-6001 |
| | | | | 문 흥 | 267-4748 |
| | | | | 백 운 | 673-4698 |
| | | | | 봉 선 | 675-6530 |
| | | | | 북 광 주 | 525-3761 |
| | | | | 상 무 | 372-2352 |
| | | | | 서 광 주 | 369-0583 |
| | | | | 송 하 | 676-6805 |
| | | | | 신 안 | 512-1732 |
| | | | | 양 산 | 571-7658 |
| | | | | 오 치 | 266-7601 |
| | | | | 웅 봉 | 522-7752 |
| | | | | 우 남 | 512-8116 |
| | | | | 윤 천 | 371-9818 |
| | | | | 팔 곡 | 961-2339 |
| | | | | 중 앙 | 222-1896 |
| | | | | 진 월 | 224-6804 |
| | | | | 첨 단 | 673-1600 |
| | | | | 장 평 | 973-2900 |
| | | | | 치 평 | 224-8212 |
| | | | | 봉 암 | 376-6511 |
| | | | | 하 남 | 682-8112 |
| | | | | 화 정 | 959-1500 |
| | | | | | 375-9662 |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